

학교생활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중3 딸이 여름방학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영어 학원을 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보는 차원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왕이면 해설지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허수정(44·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A 평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능 모의평가 기출문제 및 정답은 출제·시행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3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할 목적이라면 고3을 대상으로 한 수능·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서울 이화여고 박재혁 교사는 “예비 고1이라면 고교 진학 전 고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중학교에 비해 깊고 어려워지는 고교 영어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란 고등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주관 아래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이 중 고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범위에서 출제되므로 고교 진학 전 중학교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는지, 영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박 교사는 설명합니다.

학력평가 문제와 해설은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평가 자료실’이나 EBSi,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MORE TIP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모의평가 문제와 정답은 있지만 해설지는 없습니다. EBSi 홈페이지의 ‘풀서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와 함께 동영상 해설 강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입시

A 감점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학들이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을 보는 경우가 많아 전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이 없다고 해서 꼭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대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므로 1학년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달려온 지원자 집단 안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세대 입학처 한정호 입학사정관은 “학과를 바꿔서 지원하는 것 자체에 감점을 주고 시작하지는 않는다. 대학에 따라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연세대는 계열 적합성 위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한다. 가령 경영학과를 준비하다 사회과학 계열로 바꿔 지원할 경우 전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물리학과와 의대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자연 계열이므로 학업 우수성과 성실성 등 지원자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 치대, 수의대 등은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관련 활동을 꾸준히 쌓아온 학생들이 지원하므로 이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평가자가 진로 변경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남은 2학기과 3학년 때 변화된 본인의 진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

학생부 활동과 관련 없는 학과 지원 불리할까요?

일찌감치 물리학자라는 꿈을 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목표로 열심히 물리 관련 활동을 해온 고2 학생의 부모입니다. 주제 탐구나 수업 시간에 발표한 보고서 역시 물리학 관련 주제가 대부분인데 아이가 갑자기 의대로 진학하고 싶다고 해요. 고3을 코앞에 둔 시기여서 진로 변경이 부담스러운데 이 학생부로 의대를 지원하게 되면 불리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영은(49·서울 양천구 신정동)

MORE TIP

진로가 바뀌었다면 학생부에 진로 변경 계기나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등의 제출 서류를 통해 진로 변경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입학사정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